혼란만 부추긴 토론회… '접점' 없었다

제2공항 검토위 마지막 토론

현 제주공항 '적정 슬롯' 놓고 각기 다른 근거로 주장
제2공항 찬반측 엇갈린 데이터로 평행선… 도민 혼선
검토위 오는 17일 마지막 회의… 권고안 내용에 관심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관련 다양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제주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검토위원회(이하 검토위)의 마지막 토론회가 지난 12일 마무리됐다.

검토위는 이날 오후 7시 10분부터 8시 30분까지 80여분간 KBS제주 TV공개홀에서 생방송 TV토론을 진행했다. 한승훈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반대 측 추천패널인 박찬식 박사와 문상빈 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 공동의장, 국토교통부 측 추천패널인 이제윤 한국공항공사 신공항계획팀장, 허희영 한국항공대 교수가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날 토론회는 양측이 서로 다른 데이터를 근거로 주장을 펼쳐 도민들의 혼선을 불렀다. 양측 주장의 토대는 국토교통부가 한국항공대와 국토연구원, (주)유신에 의뢰하고 2015년 12월 준공한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선 검토 최종보고서'다.

그러나 적정 슬롯(시간당 이·착륙 횟수)과 적정 수용능력 데이터 부분에서는 서로 다른 주장을 펼쳤다. 허희영 교수는 "제주공항의 적정 수용인원은 2600만명"이라고 말하자, 박찬식 박사는 "공항 단기 확충으로 3500만명으로 늘어났다"고 반박했다. 적정 슬롯에 대해 박찬식 박사는 '시간당 40회'를, 이제윤 팀장은 '35회'를 이야기했다.

결과적으로 양측 주장은 모두 맞다. 사타 보고서의 제주 공항인프라 단기 확충방안을 보면 조사 당시 '시간당 슬롯 36회(연간 17만회)·수용인원 2589만명'에서 단기 확충방안 완료 후에는 '시간당 40회(연간 18만9000회·수용인원 3155만명)'으로 늘어난다고 분석했다.

반대 측은 보고서를 근거로 유도로와 계류장, 여객이용시설 등을 확충하는 단기 사업이 현재 마무리 단계에 들어감에 따라 제주공항 처리용량이 시간당 40회라고 주장한 것이다. 그러면서 관제 문제 등이 개선되지 않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의 의지 부족을 지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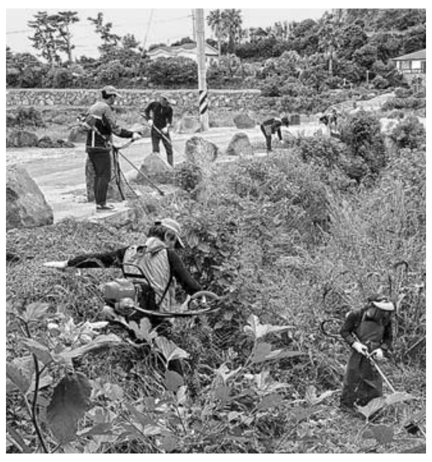
반대로 국토부 측은 처리능력이 '40회'가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현실적으로 반영이 불가능하다고 받아쳤다. 관제 등 모든 것을 종합한 결과 시설 확충에도 지난 3년간 슬롯 확대가 어렵다는 설명이다. 슬롯이 늘어날수록 항공기 간 안전거리가 14㎞ 이하로 좁아져 안전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국토부의 주장과 일맥상통한다. 또 현 공항 확충은 제2공항의 대안이 아니라는 뜻도 담겨 있다.

결국 반대 측은 '절대용량'(지연을 고려하지 않은 시간 상 최대 처리용량)을, 국토부 측은 '실용용량'(서비스 수준 및 관제·공역 등 지역특성이 고려된 용량)을 놓고 이야기 한 셈이다.

검토위는 오는 17일 서울에서 마지막 5차 회의를 열고 권고안을 작성한 뒤 국토교통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그러나 양 측의 주장이 평행선을 유지하면서 제대로 된 의혹 검증 없이 제2공항 기본계획이 수립되거나 갈등을 더욱 확산시킬 우려가 깊어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이소진기자

"비 많은 여름… 재난 피해 막아라"

국지성 호우 빈번 전망에
서귀포시, 사전점검 나서



서귀포시는 최근 국지성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자연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하천지장물을 제거했다. 사진=서귀포시 제공

서귀포시는 올 여름 국지성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자연재난으로부터 인적·물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자연재난 대비 및 피해저감 대책 추진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6월 하순부터 국지성 집중호우가 잦고 태풍은 평년과 비슷하게 11~13개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재난안전상황실 근무를 단계별 상황에 적합하게 강화하고 상습침수지역 주민을 위한 재난문자 발송 등으로 신속히 상황을 전파해 인명 피해가 없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해안가 저지대 및 하천하류 등 취약지역에서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예비 특보 시 선제적인 현장 예찰을 통해 위험지역 재난안전선 설치 및 출입을 통제하는 등 적극적인 안전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태풍 및 집중호우에 따른 하천범람 피해 예방을 위해 지난 5월부터 소하천 및 지방하천 82개소를 대상으로 하천지장물 제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김형섭 시 안전총괄과장은 "강도 높은 대비를 통해 자연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태윤기자

중소기업 탐방 참가자 모집

제주특별자치도는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총 4회에 걸쳐 '중소기업 탐방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하고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달 28일 진행되는 2회차는 취업준비생(청년장병) 25명을 모집해 제주 향토 강소기업인 (주)한라산을 탐방한다.

제주도는 일 경험의 기회가 적은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며, 수료자에겐 수료증 발급과 함께 당일 중식비, 교통비를 별도 지원할 방침이다. 문의=제주도 일자리과(064-710-4459) 또는 (주)키움커리어(064-742-3767). 고대로기자

서귀포시 안덕면이 추진 중인 빈집 프로젝트를 통해 지난 12일 화순리에서 사랑의 집 3호 입주식이 열렸다. 사진=안덕면 제공

빈집을 보금자리로… 이웃의 '따뜻한 마법'

안덕면 '사랑의 집짓기'로
무주택자에 거주 공간 제공
3호 입주… 민관 협력 눈길

지역의 빈집을 활용해 형편이 어려운 무주택자에게 일정 기간 무료로 제공하는 서귀포시 안덕면의 빈집 프로젝트 '좋은 이웃, 사랑의 집짓기'가 올해도 이어지고 있다.

안덕면(면장 이상헌)과 안덕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김태언)는 지난 12일 화순리 소재 '안덕면 사랑의 집 3호'에서 조촐한 입주파티를 마련했다. 입주자는 그동안 난방·수도시설이 없는 무허가 컨테이너에서 10년 넘게 거주해 온 70대 홀몸 어르신이다.

안덕면과 안덕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해 9월부터 추진한 빈집 프로젝트를 통해 1호 서광동리, 2호 상천리에 이어 이번에 3호 화순리까지 모두 3곳에서 빈집을 고쳐 주거취약가구 3가구에 따뜻한 보금자리로 제공했다. 프로젝트에는 빈집을 3년동안 임대료 없이 제공해준 집주인과 방주사회복지지원센터,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재능기부자, 자원봉사자들이 낡은 집 개보수에 참여하는 등 민관이 주거취약계층을 돕는 사업에 힘을 보탰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이상헌 안덕면장은 "사랑의 집이 완성되기까지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빈집을 발굴하고, 집 개보수에 두 팔을 걷어붙인 방주사회복지지원센터와 재능기부자, 자원봉사자들의 힘이 절대적이었다"며 "연말까지 사랑의 집 5호 입주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미숙기자

정착주민과 함께하는 나눔장터

대륜동 15일 월드컵경기장서

서귀포시 대륜동(동장 강성규)과 대륜동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허경택)는 '제5회 정착주민과 함께하는 나눔장터 & 작은 음악회'를 오는 15일 오전 10시부터 제주월드컵경기장에서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호근마을의 차롱만들기 시현, 법환마을의 최영 장군복·해녀복 입어보기, 녹색환경 및 소방·안전문화 홍보 등이 이뤄진다. 특히 호근마을의 차롱만들기에서는 올해 4월에 제주도 무형문화재 '구덕장'으로 신규 지정된 김희창 씨가 직접 시현에 나설 예정이다.

체험프로그램으로는 다육이 뿔소라 화분 만들기, 전통놀이 문화체험(제기·팽이·투호), 수경식물 꾸미기, 파라코드 팔찌 만들기와 빙떡 등 먹거리를 만들기 등이 준비됐다.

이벤트 프로그램은 스토리우체통(1년 후 받는 편지), 대륜 명소 12경을 그려보는 어린이 사생대회, 주민 노래·장기자랑, 수박·레몬·아이스크림 빨리 먹기 대회, 물속 보물찾기, 기부물품 경매 등 다채롭게 준비됐다.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보훈의 달 맞아 정기연주회
도립서귀포합창단 오는 20일

도립서귀포합창단(지휘자 최상윤)은 오는 20일 오후 7시 30분 서귀포예술의전당 대극장에서 '제62회 정기연주회'를 개최한다.

이번 연주회는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넋을 기리고 보훈가족을 위로하기 위해 열리는 것으로 '브람스 독일 레퀴엠' 등이 연주된다. 레퀴엠은 '죽은 사람의 영혼을 위로하기 위한 미사'를 뜻하는 곳으로, 이번에 연주하는 브람스의 레퀴엠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등 총 7곡이 연주될 예정이다.

연주는 도립서귀포합창단과 국내 최정상급 성악가인 소프라노 유소영, 바리톤 김승철의 협연, 그리고 2대의 피아노와 팀파니로 구성됐다.

특히 본 공연에 앞서 서귀포대신중학교 학생들과 함께하는 '로비음악회'가 오후 7시부터 10분여 동안 연주될 예정이다.

본 공연은 전석 무료공연으로 8세 이상 관람 가능하다. 이태윤기자